

경주 권고문

‘지속가능발전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계유산협약 4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8월 29-30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세계유산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국 34개 세계유산도시 시장단은,

동 회의를 주최한 경상북도와 경주시, 주관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방콕사무소에 아시아 태평양 세계유산도시 간 관리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에 사의를 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가 새롭게 증대되고 있는 기회이자 도시에 위치한 세계유산 보존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임을 이해하고,

도시 유산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 그러한 유산 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와 사적, 공적 영역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며,

2011년 11월 10일 제 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문과 그 행동 지침에 주목하며,

시장은 미래세대가 유산 자원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역사적 환경의 발굴과 보호, 강화의 최적임자임을 고려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세계유산도시 시장들에게 하기와 같이 권고한다.

1.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문의 원칙들을 도시 발전과 계획에 통합하고 시범사업들의 시작과 이행을 모색한다.
2. 1972년 세계유산협약과 2011년 역사도시경관 권고문의 내용과 원칙에 대해 도시 계획 담당자 및 결정권자의 역량강화와 인식제고를 촉진한다.
3. 유산의 장기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해당 도시에 위치한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한다.
4. 세계유산도시기구의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계유산 도시의 보존 관리에 대한 여러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도시 간 네트워크를 새로이 만들고 유지한다.
5. 경주시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첫 설립과 2014년 제 1회 지역총회 개최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이에 상호 협력한다.